



2020년 12월 둘째주

해외 ICT 표준화 동향

목차

20.12.01 독일 BMWi, 제14회 디지털 서밋 개최 - 디지털화 주목

본문 20.12.01 ASEAN-EU, 연결성에 대한 공동성명

20.12.01 CCSA, TC5 '네트워크 지능화' 세미나 개최 5G+AI 융합 추진

단신 20.12.03 ETSI, 'Designing Tomorrow's World' 비전과 전략 공개

20.12.03 중국 CESI, 스마트 제조 표준화와 산업 발전 포럼 개최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독일 BMWi, 제14회 디지털 서밋 개최 - 디지털화 주목

Digital-Gipfel 2020 – „Digital nachhaltiger leben“

보도날짜 : 20.12.01.

출 처 : <https://www.bmw.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12/20201201-digital-gipfel-2020-altmaier-digitalisierung-kann-enormen-beitrag-fuer-erreichen-der-klimaschutzziele-leisten.html>

-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보호 등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효율성 증가는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핵심이 될 것으로 인식. BMWi(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독일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마이크로 전자, 통신기술 등 다양한 유럽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 중
- BMWi는 제14회 디지털 서밋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최. 이번 첫 가상 디지털 서밋에는 정치, 기업, 노동조합, 과학 및 사회단체의 수천 명의 고위 대표들을 초청.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다수의 독일 연방 장관과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술라 폰 데어 레옌 회장이 회의에 참가
 - 서밋에 참가한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가능성과 정보통신기술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
 - 서밋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자료들은 기존의 건물들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솔루션을 사용하여 스마트하고 통합적이며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극자외선을 가진 EUV lithography가 어떻게 더 작고,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IT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양자 기술을 통해 통신 도청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지 제시. 또한 10개의 서밋 플랫폼에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30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 영상을 제공
- BMWi 장관은 현재 설립 중인 GAIA-X 협회 창립 멤버들과 함께 35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AIA-X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발표. 특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은 GAIA-X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GAIA-X에서 선두에 서는 최초의 주요 사용자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 BMW, 도이치 텔레콤, Robert Bosch, SAP, Siemens 및 ZF Friedrichshafen은 GAIA-X를 기반으로 한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동차 산업에서의 안전한 회사간 데이터 교환을 구축할 계획임을 공개. 이를 통해 업계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구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는 유럽 자동차 산업과 회원사들에게 개방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GAIA-X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 유럽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 효율적이 되도록 사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이런 방식으로 유럽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지속가능하도록 확보하여 데이터 경제의 큰 기회를 관련 업계와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예정. 추가적으로 자동차 연합의 이니셔티브와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BMWi는 상술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발표

- BMWi는 디지털화를 발전시키려면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와 더불어 정의된 기후 목표에 따라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디지털 인프라는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시·군이 보다 쉽게 지속가능성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BMWi의 시·군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포커스 그룹 '지능형 네트워킹'과 공동으로 이번 디지털 서밋을 위해 스마트시티 네비게이터를 공개. 해당 네비게이터는 도시와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중

☞ 2020년 디지털 정상회의 전체 프로그램 및 BMWi의 현재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www.de.digital

2. ASEAN-EU, 연결성에 대한 공동성명

ASEAN-EU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Connectivity

보도날짜 : 20.12.01.

출 처 : <https://asean.org/asean-eu-joint-ministerial-statement-connectivity/>

-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외무장관,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 외교안보정책연합 고위대표 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일 제23차 아세안-EU 장관급회담을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
 - 해당 회의를 통해 ASEAN과 EU는 연결성과 지역 통합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ASEAN과 EU 사이의 연결성을 증진시키기로 합의. 이와 관련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EU 전략과 2025년 아세안 연결 기본계획(MPAC)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연결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등 이 분야에서 아세안과 EU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
 - 이번 회의를 통해 제13차 ASEM(Asia-Europe Meeting)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연결성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이동성 및 "EU 연결성 전략"의 4가지 핵심인 에너지, 디지털, 교통 및 사람 대 사람 등 분야에서 강력한 아세안-EU 협력과 MPAC 2025 간의 시너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ASEAN과 EU는 연결성에 대한 시너지를 구축함으로써 아세안의 연결성 접근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유럽 그린딜 등 각각의 녹색성장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ASEM 회원국 간 이미 상호합의된 연결성은 평화 정신, 포괄성, 개발, 협력, 경제, 재정, 재정,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공평, 종합적 및 규칙 기반적인 상호 이익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국제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아세안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 스마트 그린아세안 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EU의 지원을 확인
- 디지털 혁신, 디지털 인프라 및 물류, 제조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ICT 보안, MSME에 의한 기술 채택,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증대, 개인 및 소비자의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는 ASEAN-EU 협력을 통해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음
- UNGA(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결의안 및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된 대로 오프라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연결의 핵심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 및 국내 법률과 일치하는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의 적절한 인식과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디지털 경제의 촉진, 디지털화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진전과 영향을 측정하는 정책 도구로서 ASEAN-EU 디지털지수에 관한 대화(ADIX) 작업을 지속하고, 디지털 전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사이버 보안,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협력하기로 합의. 이러한 맥락에서 ASEAN-EU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평화로운 ICT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ASEAN-EU 사이버보안협력 성명의 이행을 권장
- ASEAN-EU는 EU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와 EU의 지구관측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가 제공하는 무료 및 개방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회를 탐색하도록 장려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들의 잠재력은 교통연결성, 환경정책, 에너지 및 통신기술의 상호접속, 경제 다변화와 MSME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
- ASEAN-EU는 교육, 문화 교류, 지속가능한 여행과 관광, 경제 협력, 공동 연구 계획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성을 활성화 및 촉진하고 상호 이해 및 사회 경제적 탄력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을 핵심 요소로 인식. 고성능 컴퓨팅 온라인스쿨 지원 및 연결성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ASEAN COSTI)와 ASEAN-EU 과학기술담화(Dialogue in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협력을 권고

3. 중국 CCSA, TC5 '네트워크 지능화' 세미나 개최 5G+AI 융합 추진

CCSA TC5成功举办“网络智能化研讨会” 推动5G与AI融合发展

보도날짜 : 20.12.01.

출 처 : <https://asean.org/asean-eu-joint-ministerial-statement-connectivity/>

- 중국 통신표준화협회(CCSA)의 TC5(무선통신기술)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5G와 AI의 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지능화' 세미나를 개최
 - 세미나에서 TC5 의장은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을 신형인프라(新基建)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 특히 5G와 AI의 통합 및 융합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능화, 시스템 지능화, 도움말 서비스 지능화 및 업무의 지능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발표
-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8명의 강연자가 각각 표준화, 기업체, 장비업체, 학계 및 AI 전문가의 시각에서 5G+AI에 대한 최신 기술 및 이슈를 공유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서는 "5G+AI 융합 시나리오"를 공개. 5G와 AI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도전과제를 제시
 - 중국 모바일연구원에서는 "DOICT 융합 추진, 지능형 5G 네트워크 구축"을 공개. DOICT 기술 융합으로 성능 향상과 복잡도 및 원가를 낮춰 수준높은 5G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솔루션 제시
 - 중국 전기통신연구원 이동통신연구소는 "스마트 스케줄 애플리케이션"을 주제로 강연. 스마트 액세스가 자원 최적화, 업무 효율화, 녹색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 투자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차이나유니콤 네트워크기술연구센터 ICT융합기술연구소는 "차이나유니콤의 네트워크 지능화 연구 및 진도"를 소개. 통신망의 복잡성과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한 비용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소개
 - 화웨이는 "스마트 5G 핵심망 연구 및 응용 혁신에 관한 연구"에 대해 공유. 특히 자율주행망 업계 트렌드부터 화웨이 자율주행망 아키텍처와 특징, 핵심망 자율주행의 전체 아키텍처부터 사례 분석까지 정보를 공유
 - ZTE는 "AI 융합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 무선인터넷의 지능화가 현재 국제표준기구와 공업계에 광범위한 관심을 얻고 있다고 발표. 특히 인터넷 에너지 절약 및 소비 절감 기술 관련 일련의 인터넷 지능화 백서를 발표
 - 베이징 체신대 전자공학부에서는 "스마트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 현재 AI+통신의 이동통신 발전 현황을 학술연구 차원에서 설명하고, 통신망에서 AI 기술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이슈를 제시. 또한 6G 네트워크에서

네이티브 AI의 수요와 솔루션에 대해 안내

- 상해 상탕 지능과학기술유한공사에서는 “5G+AI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 AI 기술 시각에서 5G와 AI가 어떻게 결합하고, 업계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부설하며, AI 애플리케이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전망하고, AI가 미래의 6G 서비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제시

1. 20.12.03. ETSI, ‘Designing Tomorrow’s World’ 비전과 전략 공개

- ▷ 원문제목 : ‘DESIGNING TOMORROW’S WORLD’: ETSI UNVEILS STRATEGY IN LINE WITH ITS AMBITIOUS VISION
- ▷ 원문링크 :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858-2020-12-designing-tomorrow-s-world-etsi-unveils-strategy-in-line-with-its-ambitious-vision>

■ ETSI는 12월 2일 진행된 총회에서 지난 몇 달간의 집중 개발 과정을 걸쳐 갱라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공개

- 해당 비전과 전략의 제목은 “내일의 세계를 설계한다(Designing tomorrow’s world)”이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900여 개 회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ETSI의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의해 구체화 됨
- 해당 전략은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ICT 표준의 역할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초

■ ETSI의 비전은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선두에 서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연결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의 개발을 선도하는 것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 ETSI는 아래 5가지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

- 디지털의 핵심에 위치할 것
- 표준 구현자가 되는 것
- 세계적인 위치에 있을 것
- 다재다능할 것
- 포괄적일 것

2. 20.12.03. 중국 CESI, 스마트 제조 표준화와 산업 발전 포럼 개최

- ▷ 원문제목 : 世界智能制造大会-智能制造标准化与产业发展论坛举办
- ▷ 원문링크 : <http://www.cesi.cn/202012/7092.html>

- 세계스마트제조대회-스마트 제조표준화산업발전포럼이 11월 27일 개최. 이번 포럼에는 IEEE 컴퓨터협회 지능제조표준위원회(IEEE/C/SM SC) 의장 및 CESI(중국전자표준화)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센터장이 주재했으며 국내외 전문가 90여 명을 포함 2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
 -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은 이미 초기의 이념적 보급, 시범단계에서 벗어나 현재 응용심화, 전면보급 단계에 이르러 기술을 선도하고,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발생하는 잠재력을 이용해 다방면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발표. 또한 표준화 작업은 제조업 발전의 기반이며, 인프라로 한 국가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반영한다고 강조. 향후 지능형 제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표준 선도 역할 강화, 산업 생태계 정비, 국제 교류 협력의 지속,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화 발전 수준의 제고하겠다고 발표
 - 국내외 스마트 제조 분야의 저명한 표준화 전문가 14명이 초청되어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트윈, 머신 비전, 스마트 물류, 개성화 시대에 맞춘 대규모 개인화 주문 등 이슈를 논의
 - 5년째 개최되고 있는 세계스마트제조대회는 스마트제조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공업정보화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제조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가속화할 예정
-